

광주 폴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비판적 재고

- 광주 구도심의 폴리와 그 주변공간의 현상을 중심으로 -

한성미

휴플랜닝(주) 연구위원

I. 서론

광주시의 구도심은 현재 여타 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물 등의 물리적 환경이 노후되고, 이용자들이 줄어들어 예전의 활기를 잃고 점차 낙후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광주 구도심 공간에 2011년 광주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써 구도심의 역사성과 장소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십여 개의 폴리(Folly)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애초의 폴리 설치의 목적과는 달리, 조성된 폴리들은 각 작품들의 제작 및 설치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 시민들이 작가의 의도나 폴리 조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폴리의 이용 혹은 활용이 현저하게 낮으며, 폴리가 간판 등을 가리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한편,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보이는 등 부정적 현상들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 비엔날레 참여 작품으로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작가들에 의해 광주 구도심의 옛 읍성 터 가장자리에 조성된 십여 개의 폴리들이 설치된 이후, 그 주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고찰하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도심재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소의 역사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세계적인 작가들에 의해 조성된 십여 개의 폴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야기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며, 셋째, 각 폴리와 주변공간의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구도심의 폴리 및 주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구도심 재생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주의 경우 폴리라는 매체를 통하여 구도심의 역사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고자 의도한 사례인바, 본 연구는 구도심 활성화와 같은 도시 재생적 차원에서 폴리 혹은 조형물, 나아가 도시 공공미술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기능 및 의미를 광주 폴리 조성 사례의 부정적 결과와 그 원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는 폴리의 정의 및 의미와 광주 폴리 조성의 목적, 폴리 조성 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각각의 폴리를 대상으로 폴리 자체와 그 주변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 제시, 마지막으로 광주 폴리 조성 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해석 및 재고를 바탕으로 도시 재생적 차원에서 폴리 조성의 같은 매체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요건들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1) 선진사례 조사

프랑스 라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은 폴리를 활용한 공간 특성화의 대표적 사례로서, 본래 가축 도살장과 정육점이 모여 있어 문화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을 재개발한 곳으로, 공원의 대표적 상징물인 붉은색의 폴리를 배치하여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 의미를 형성하게 하였다. 즉, 공간과 이용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개념을 통해 공원과 공간, 공간의 이용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비로소 공원이 완성되는 사례를 보여줌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킨 모범적 실천방법을 제시함에 따라, 동일한 폴리라는 매체를 활용한 광주 폴리의 경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 현상학적·정성적 연구

본 연구는 야외공간에 조성된 폴리라는 작품과 그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에 대한 이해가 기본을 형성하므로, 표준화 된 설문지 및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정량적 연구 방법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다수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 연구조사 방법인 현상학적-정성적 연구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 내용상 물리·시각적, 사회·문화적, 이용·행태적 조사로 나누었으며, 구체적 방법으로 관찰조사, 흔적조사, 그 외, 현장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 해석을 실시하였다.

III. 고찰 및 결론

광주시는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광주 구읍성 성벽터를 따라 10개소에 '광주 폴리'를 설치하였다. 세계적 작가들이 각자의 예술성과 의미를 부여하여 조성한 이들 폴리는 특히 2011년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 초기에는 많은 기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나갔으나, 현재 폴리는 역사성 강화의 주제를 통해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애초의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주 폴리 조성의 문제점과 부정적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물리적 측면에서 볼 때 광주 폴리가 옛 읍성터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전혀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치된 폴리의 의미나 상징이 전달되지 않고,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시민들과 폴리와의 소통이 부족함에 따라, 작가가 의도한 행위나 이용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폴리에 의해 간관이 가려지는 등 상업 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안전성의 문제나 방치에 의한 훼손 등 향후 도시의 흉물로 남게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광주 폴리의 근본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작가들은 광주 구도심의 물리적, 정서적, 행태적 환경 및 조건, 장소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없이 단순히 '관념적,' '오브제(object)적' 작품을 생산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옛 읍성 터를 표현하기에는 폴리들에서 어떠한 의미적 통일성 혹은 동질감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폴리 각각의 의미와 주제는 다르다 하더라도 읍성터라는 공통적 의미는 어떠한 맥락성(context)도 고려하거나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폴리들이 옛 읍성터의 가장자리라는 의미를 보여주기에는 최소한의 물리·시각적 의미전달의 요소가 부재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광주 폴리의 문제점들은 장소성(sense of place)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공간이 아닌 '장소'의 형성을 통해 폴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현재 10개의 폴리가 지닌 각각의 물리적 구조와 의미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크게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물 활용 강화의 형태로 보완할 수 있다.

폴리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기능이 없는 구조물을 뜻한다. 그것에 인간의 활동과 의미를 담을 때 폴리가 완성되며, 그러기 위해서 폴리는 단순히 작가주의가 강조된 오브제가 아닌, 인간과 공간의 소통이 어우러지고, 장소를 형성하는 기능이 중요함을 현재의 광주 폴리가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찬호(2002) 도시는 미디어다. 책세상.
2.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50인 공저(2004)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 임승빈, 주신하(2002) 조경계획·설계. 보문당.
4. Magnusson, Warrn and Karena Shaw(2003) A Political Sp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5.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UK: Pion Limited.
6. www. gwangjuolly.org